

# 2024 **우리마을** **초고속 통신망**

활용체험 수기 공모전 우수사례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우리마을**  
**초고속 통신망**

활용체험 수기 공모전 우수사례집

# Contents

2024 우리마을 초고속 통신망활용체험  
수기 공모전 우수사례집

PART

1

장관상

## PART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장관상

- |    |  |    |
|----|--|----|
| 01 | 우리 동네 알고 보니 기가(Giga)~ 막힌<br>광대역 통신망 맛집이었네!   이정호 | 06 |
| 02 | 잘 터지는 건 김밥 옆구리가 아니라<br>우리 마을 신명이에유~   장은선        | 15 |

## PART 2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원장상

- |    |                             |    |
|----|-----------------------------|----|
| 03 | 소는 누가 키워? CCTV가 키우지~!   전누리 | 21 |
| 04 | 우리 집에 조용한 경비원이 산다   정원형     | 27 |

## PART 3 | ✦ 통신사상

- |    |                               |    |
|----|-------------------------------|----|
| 05 | 오지 마을에서 빛의 속도로 세상과 소통하다   김성길 | 32 |
| 06 | 아자아자! 시민의 행복이 곧 나의 자부심   김성덕  | 37 |
| 07 | 디지털로 소통하는 살맛 나는 우리 마을   김영수   | 41 |





## 우리 동네 알고 보니 기가(Giga)~ 막힌 광대역 통신망 맛집이었네!

✍ 이정호 (충청북도 청주시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 / 방송통신주무관)



도농 복합 도시인 청주시의 사업 담당 공무원이 인터넷 농산물 쇼핑물에 도전한 농부, 도시 부럽지 않은 슬기로운 전원생활을 누리는 귀촌 가족, 경로당의 빠른 인터넷에 스마트 시니어를 꿈꾸는 어르신 등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풀어낸 사업추진 경험담

### #1 딸기 농부의 도전! 인터넷 쇼핑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농사 지은 작물을 판다던데, 나도 한번 배워서 해볼까...”

딸기 농사를 짓는 A씨는 올해 유난히 풍작인 딸기 덕분에 추운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작년에 딸기가 금값이어서 올해는 재배 면적을 두 배 가까이 늘렸는데, 너무 애정을 쏟았는지 줄기마다 주렁주렁 딸기들이 평소보다 두 배는 달린 것이다. 하지만 수확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이걸 제때 못 팔면 어찌나’ 하는 걱정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떠올린 것이 인터넷 판매였다.

예순이 다 된 A씨로서는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듯 했다. 하지만 애써 키운 딸기들이 물러서 못 팔게 되는 걸 보는 것보다는 공부가 쉬울 것 같았다. 다행히 딸이 대학 가기 전 사용하던 컴퓨터도 있었고, 선견지명인지 작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컴퓨터 기초도 배워뒀기에 ‘나도 못할 것 없다’ 싶었다.

그런데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인터넷 설치. 쇼핑물을 만들려면 컴퓨터에 인터넷을 연결해야 하는데 통신사에 전화로 물어보니 설치 비용이 100만 원도 넘는다는 것이다. “딸아이 얘기로 3만 원이면 된다고 하던데 무슨 소리냐”라며 역정을 내자 상담원은 “아버님 댁은 근처에 초고속 통신망이 없어서 별도로 공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A씨는





그 큰돈을 내고 잘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쇼핑몰을 할 수는 없다며 그냥 포기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뭔가 억울한 생각이 들어 읍내에 나간 김에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컴퓨터 교육을 접수해 준 공무원을 찾아 물어봤다.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니 그는 “아버님, 걱정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라며 장담하는 것이 아닌가.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어떻게 해결해 준단 건지 A씨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공무원은 예의 친절함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

“어제 청주시 정보통신과에서

아버님 댁 같은 시골집에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라는 걸 하니

접수 받으라고 공문이 왔지 뭐예요. 제가 오늘 바로 신청해 드릴게요.

어떻게 딱 맞게 찾아오셨는지, 아버님 정말 운도 좋으세요!”



## #2

### 귀촌 가족의 슬기로운 전원생활

숨 돌릴 틈 없던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한적한 시골에서 제2의 삶을 살기로 한 주부 B씨 가족. 직장에 다니는 남편 대신 B씨가 몇 달을 임장하러 다닌 끝에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다. 시골이긴 하지만 행정 구역상으론 청주시라 초보 귀촌러가 지내기도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았다.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선지 주변에 새로 지은 것 같은 멋진 주택들도 꽤 보였다.

‘나도 이제 SNS에서 보던 예쁜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에 살 수 있어.’ B씨는 부푼 꿈을 안고 집 공사가 끝나기만 기다렸다.

마침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 검사를 앞둔 시점. 가재도구를 새로 장만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실측을 나간 김에 CCTV도 설치 하자 싶어 보안회사에 전화를 했다. 상담원은 먼저 인터넷이 있어야 한다며 제휴 통신사에서 함께 나가 한번에 설치해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설치 당일 아침, 인터넷 기사로부터 B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해당 지역은 초고속 통신망이 없어서 인터넷 설치가 어렵겠어요. 초기 비용을 부담하시면 설치하는 가능하지만 100만~200만 원 정도라 부담이 되실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허허벌판에 새로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비어 있던 집을 사서 개축했는데 전에 살던 사람은 인터넷도 없이 살았던 말야?’

B씨는 황당한 마음에 재차 물어봤지만 인터넷 기사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다. 다시 통신사에 자세히 알아보니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초고속 통신망이 없어 5G는 쓸 수 없고 느린 3G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B씨가 남편과 초등학교 아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아들은 “그럼 온라인 수업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는 거 아냐”라며 펄쩍 뛰었다. 그나마 아직 방학이라 다행이지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든 인터넷 연결을 해야 할 텐데 200만 원이란 금액을 생각하니 선불리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아쉬운 대로 우선 3G 인터넷이라도 설치해서 사용해 보기로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B씨 가족은 새집으로 이사를 했다. 대충 정리를 끝낸 B씨는 곧장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요즘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된지만 집 인터넷이 느리기도 하고 아들 전학을 위해 필요한 서류도 받아야 했기에 직접 방문한 것이다. 그리고 B씨는 정보통신 담당도 아닌 전입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도 모르게 하소연을 했다.

“농촌 생활이란 게 시작부터 쉽지 않네요...”

공무원은 무슨 일인지 듣더니 잠시만 있어 보라며 어디론가 사라졌다. 금세 다시 온 그는 다른 공무원을 대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른 공무원 으로부터 나온 얘기에 B씨는 “청주시 최고!”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말인즉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

B씨 집에 5G 인터넷망을 깔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안내문을 받아들고 돌아서며 B씨는 다시 한 번 작게 외쳤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최고!”



### #3

#### 스마트 할머니의 스피드 경로당

태어나 자란 곳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C씨. 이제 초로에 접어들어 농사일도 줄이고 남는 시간에는 주로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긴다.

C씨의 마을 경로당에선 매주 색다른 취미 수업이 펼쳐진다. 댄스, 치매 예방, 건강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C씨는 요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바로 경로당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는 것. 가끔 유치원에 다니는 손주와 먼 소재지에 나가 햄버거를 사먹곤 하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 주문을 못해서 손주로부터 핀잔을 듣는다. 직원에게 주문을 할라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다 보니 참을성 없는 손주 녀석이 늘상 할머니를 재촉하는 것이다.

물론 행정복지센터나 읍사무소 같은 곳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자 대상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지만 1시간짜리 수업 듣자고 왕복 2시간을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이 C씨에겐 힘에 부치는 일이다. 게다가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인터넷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차피 헛수고일 터였다. 가끔 장에서 만나는 옆 마을 할머니 말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안다고 하는데, C씨의 스마트폰은 집에서도 경로당에서도 무늬만 스마트폰일 뿐이다. C씨도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영상을 찾아본 적 있지만 인터넷이 느려선지 계속 뚝뚝 끊기는 통에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C씨는 집까지는 바라지 않고 경로당에서라도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으로 이장이 찾아왔다. 그는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걸 따내서 우리 마을도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온다며 경로당에도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공짜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자랑하듯 얘기했다.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장의 설명 가운데 다른 건 모르겠고 6글자는 C씨의 귀에 또렷이 들어왔다. 바로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C씨는 속으로 외쳤다.

‘이제 나도 손주 녀석이 자랑할 만한 스마트한 할머니가 될 수 있어!’



약간의 각색을 했지만 세 가지 에피소드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번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우리 농촌에서는 어떤 곳에서 무슨 사유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 발로 뛰어 알아봤다. 그 결과 세 가지 타깃을 발견했다. 인터넷 쇼핑물 창업자, 귀촌 주민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어르신들.

내가 몸담은 청주시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도농 복합 도시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은 신청만 하면 당일에도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은 통신 인프라의 미비로 누려야 할 편의들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사업을 하면서 더 세심하게 살폈다. 무엇보다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 꼭 필요한 농촌 지역을 발굴해야 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니 수요도 없는 곳에서 허투루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직접 발로 뛰며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그 과정에서 청주시청 본청은 물론 읍·면·동 담당자와도 긴밀히 연락하며 인구 유입, 인터넷 보급 실태 등을 상세히 확인했다.

‘현장을 가면 답이 보인다’라는 말처럼 역시 답은 현장에 있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 현황, 경로당 이용 연령층 및 사용 빈도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통신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주민의 인터넷 신청 현황도 파악했다. 그렇게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직접 방문해 확인한 후, 주민의 니즈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앞서 첫 번째 에피소드의 농부처럼 직접 경작한 농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인터넷이 필요한 이도 있었고, 두 번째 주부처럼 전원주택 단지인데도 초고속 통신망이 없어 불편을 겪는 이도 있었다. 세 번째 할머니처럼 경로당에 인터넷이 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어르신도 있었다. 머리로 알고 있던 사항들이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듣고 보니 그분들의 애로가 얼마나 큰지 더욱 와닿았다.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으로서 막연하게 신청서만 접수받아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실효성을 높일 방법을 강구하고자 세심하게 수요 조사를 한 자신에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주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동안 총 10개 마을을 선정해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을 성료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통신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은 물론 마을의 이·통장들과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연락하며 진행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다.

덕분에 사업이 끝난 지금, 실제로 농산물 인터넷 쇼핑물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소득이 크게 상승했다는 농가의 이야기가 들린다. 가덕면의 상대리 마을은 딸기 작목반으로 유명해져 TV 방송도 심심치 않게 타게 되었다.



일일이 확인하진 못했지만 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을 해야 했던 때라 전원주택 단지 거주자들도 혜택을 크게 느꼈을 것이다. 또 경로당 어르신들도 이제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신나는 인터넷 세상을 만나고 계실 것이다. 어쩌면 경로당에 모여 요즘 인기인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사실 사업 하는 과정이 생각처럼 녹록지는 않았다. 시민들을 만나 설명을 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담당자로서 청주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초고속 통신망 혜택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상이라고들 한다. 그 동안은 그 하나에 속하지 못하던 농어촌 주민들에게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생각에 무엇보다 보람을 느낀다.

실제로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만난 한 시민께서는 “초고속 통신망이 깔리면 기가 막히게 빠른 속도로 비행기표 예매를 할 수 있는데, 돈은 별만큼 버셨으니 이제 해외에도 좀 나가 보셔라”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말 그대로 ‘기가(Giga)’ 막힌 인터넷 세상에선  
누구든 주인공이 될 수 있다.



## 잘 터지는 건 김밥 옆구리가 아니라 우리 마을 신명이에요~

장은선 (충청남도 예산군 차동리 마을 / 그린파머스 대표)



바쁜 도시의 삶에 지쳐 충남 예산의 깊은 산골로 내려온 초보 귀농인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활용하여 산촌의 특색을 살린 치유센터와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 홈을 만드는 등 자신의 꿈을 실현하며 마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이야기



“삼촌! 연락 한다더니 왜 안 해요? 일 안 하세요?”

“위메, 속 터지네…. 여기 통화 기록 좀 봐유!  
전화를 몇 번이나 했나! 전화가 안 터져서 밤새 내  
속도 터지는 건 우리 집 소박에 모르지.”



고개고개 굽이진 마을에서는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집들이 띄엄띄엄 있어 인근에선 사람 보기도 힘든 깊은  
산골짜기라 스마트폰이 잘 안 터지는 탓이다.

나도 몇 년 전까지는 기간시설이 잘된 도시에서 살았다.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며 보람도 느꼈다. 하지만 도시에서는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을뿐더러 생명의 근원이 되는 땅을 밟을 기회가  
없어선지 여기저기 몸에 탈이 나곤 했다.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큰 병이 날  
것 같았다. 그래서 귀농을 선택했다. 제자들과 그 가족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자는 생각도 귀농 결심에 한 몫을 했다.

치유 하면 역시 숲이 먼저 떠오르지 않는가. ‘도시 춘답’이던 나는  
이것저것 따져 보지도 않고 지금의 깊은 숲속 집으로 덜컥 이사부터 왔다.  
하지만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환경이 속 터지는 원인이 될 줄이야.

전화 통화 한 번 하려면 저 멀리 도로 근처까지 내려가야 하고, 애써 키운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팔려고 해도 인터넷이 안 터져서 노트북을 덮고  
마는 속 터지는 나날의 연속이다. SNS로 도시의 친구들에게 시골의 멋진  
풍경과 생활을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감생심.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과 컴퓨터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이리저리 알아도 봤다. 하지만 통신 전신주를 심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에 좌절만 더 커졌다. 세계가 알아주는  
‘K통신강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던 나를 탓할 수밖에….  
그렇게 재택근무는 고사하고 SNS마저 폐업 상태로 자의 반 타의 반  
사람들에게 잊혀갔다. 그래도 포기가 안 돼서 먼 소재지 나갈 때마다  
사람들을 붙잡고 묻곤 했다.

“그쪽은 (전화랑 인터넷) 잘 터져유? 우리 집은 안 터져유….”

“뭘 소리여, 안 터지는 곳이 어딴어? 요즘 세상에!”

내가 사는 곳은 특히 산속 깊은 곳이라 전파 방해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며  
속상함을 토로하니 동네 어르신께서 한 말씀 하신다.

“이장한테 말혀 봐. 그럼 뭘 수를 내도 내줄 거여….”

곧장 이장님께 달려갔다.

“이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뭘 소리유?”

“집에서는 스마트폰도 잘 안 터지고, 인터넷이 안 돼서 일도 못해요!”

“아이고, 진즉 말하지. 안 그래도 옆집 젊은 사람들이 게임하고 싶어도 통신이  
느려서 게임할 맛 안 난다고 계속 귀찮게 하길래 게임은 읍내 나가서 하라고  
했어. 그래도 일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면 안 되지. 내가 알아봐 줄게, 좀 기다려  
봐유.”

드디어 나타난 돌파구에 한껏 들떴다가 감감무소식인 이장님에 다시 한없이  
가라앉고…. 오락가락하는 기분으로 며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계슈?”



“예, 이장님,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에요?”

“조만간 우리 동네에 초고속 통신망이 깔린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봐요. 이참에 알아보니 우리 동네에 골짜기가 많아서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많대유. 다 어르신들이라 인터넷은 그닥 신경을 안 썼는데, 거기처럼 귀촌한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인터넷이 안 돼서 일 보려고 시내까지 나갔다고 하네유. 마침 정부에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란 걸 한다고 해서 신청하고 오는 길이유.”

“아고, 큰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큰 목청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니 이장님께선 “감사는 뭘. 내가 하나, 정부가 하는데”라며 숙쓰러움에 되레 통명스럽게 답하셨다. 그리고는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런 산속까지 들어왔는지 궁금해하셨다.

“치유 농장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제가 사는 곳이 치유 마을이 되었으면 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따와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어? 그거 우리 마을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생각만 하고 있었유!”

크게 반색하시며 자세히 말해보라고 재촉하시는 이장님께 그동안 구상한 것들을 알려드렸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주민이 행복하고 타지에 나간 가족들과 도시 사람들도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마을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이후 본격 의기투합한 나와 이장님 그리고 마을 주민 분들이 다 함께 노력한 덕분에 내년이면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 홈이 만들어지고 치유센터도 생긴다. 물론 그 시작은 ‘연결’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 초고속

통신망이다.

정부의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덕분에 이제 이장님 댁 옆집 젊은이들은 집에서 신나는 인터넷 라이프를 즐기고, 마을 어르신들은 영상통화로 사랑스런 손주들과 밤낮없이 편하게 만나신다. 나는 다시 활발하게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도 SNS도 열심히 하고 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도시에선 별것 아닌 일상이다. 하지만 초고속 통신망 설치 전까지 우리 마을에선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지방인구 소멸 시대에 시골에도 초고속 통신망은 필수다.

각박한 도시를 떠나 여유 있는 삶을 살고자 시골로 내려온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도시로 나간 가족을 그리워하는 원주민들에게도.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 마을처럼

속 대신 신명 터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 본다.



# PART 2 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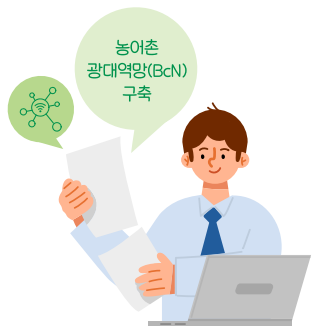
## 소는 누가 키워? CCTV가 키우자~!

✎ 전누리 (전라남도 담양군 정보통신직 공무원)



축산 농가와 비닐하우스가 많은 전남 담양군의 정보통신직 공무원이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지를 지역에 맞게 확대하려 애쓴 결과 마침내 결실을 맺고 지역 방송에도 성과가 보도되며 보람을 느낀 이야기





나는 2015년 담양군청 방송통신 9급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 8월 '농어촌 광대역망(BcN) 구축' 사업의 담당자가 되었다.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된 만큼 나부터 제대로 알아야 했다. 그래야 주민들에게도 사업에 대해 잘 전할 수 있을 테니.

우선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이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봤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응당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어촌 지역은 지리적 한계와 정주 인구 문제 같은 이유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가장 기본적인 통신 수단인 전화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교육, 쇼핑, 금융 업무 등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도 많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들이 농어촌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 간 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는 곧 일상생활의 질적 수준 격차로 연결되며, 나아가 농어촌 지역으로의 유입 인구 감소를 유발해 지방 소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도시에서 나고 자라 일찌감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나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농어촌 지역의 고충을 방송통신직이란 책무를 짊어진 후에야 온전히 가늠할 수 있었다. 다행히 내가 '농어촌 광대역망(BcN) 구축' 사업을 담당할 시점은 2010~2017년까지 시행된 앞선 사업의 8년 대장정이 마무리된 시기였다. 그래서 이미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을 테니

나는 사후관리만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아, 이런 좋은 사업이 있었고 우리 군은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진행했구나. 더 필요한 곳은 없나? 그렇다면 사업을 연장해도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다 2020년 어느 날, 디지털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재개되었다. 나에게도 기존 사업에서 놓친 수요를 조사하라는 공문이 도착했다.

반가운 마음으로 대상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주민과 가장 가까이 닿아있는 읍·면사무소의 직원들도 이 사업이 낯설어진 건지, 아니면 정주 여건이 달라진 건지 신청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나마 들어온 신청서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꽤 됐다.

농어촌 지역도 도시처럼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정작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에 설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집이 아니라 근무지에 설치를 원해 사업 요건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그런 곳들도 인터넷이 꼭 필요한데 이번 사업에서는 대상지로 선정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그렇게 2021년과 2022년의 사업 대상지 선정은 우리 군도, 통신 사업자도 크게 만족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담당자로서 아쉬움이 컸지만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다.

이후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23년, 새로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그로부터 얼마 전 새로 부임한 팀장님은 오래전 실무자로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사업을 경험한 분이셨다.

팀장님은 사업 대상지 수요 조사 공문을 보고선 대변에 “이 사업이야말로 진짜 우리 담양 같은 농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대상지 열심히 찾아서 물량 최대한 확보해 보자”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희망차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실무자로서 지난 2년 동안 사업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가 평행선을 달리는 광경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곳은 사업 대상지 요건에 안 맞더라고요. 봉산면 어느 마을은 매년 꾸준히 신청서를 제출했고 KT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원할 만큼 수요가 많은데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이면 올해도 신청 가능한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될까 걱정이예요.”

내 보고를 들은 팀장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요즘 스마트팜이니 사물인터넷이니 농업 분야에서도 인터넷은 공기와 같은 시대인데 축사라고 안되고 하우스라고 안되는 건 결국 사업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아냐? 도청에 문의는 한 번 해봐. 우리 형편을 잘 전달해서 목적에 맞춰 유연하게 추진해서 주민이 만족하면 그게 진짜 진정성 있는 사업이고 적극 행정이 아닐까.”



순간 그 말이 머리를 톡 하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담당자라는 사람이 설득 한 번 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안된다며 안타까워만 하고 있었다니….

충격에서 헤어난 나는 바로 도청에 연락해 담당 주무관에게 설명했다. 우리 군에서는 마을보다 축사나 하우스 단지 쪽에 설치 수요가 많다, 농업이 주된 지역에서 농업시설에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하면 그게 곧 농가 소득과도 직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인데 잘못된 방법이 아닌 이상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더 가치 있지 않느냐라고.

그리고 덧붙였다.

“이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통신 사업자마저도 축사나 하우스 쪽은 수요가 많아서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 모두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게 재고 한 번 해주세요.”

다행스럽게도 도청 담당 주무관은 우리의 사정에 충분히 공감했다. 그에게서 긍정의 답변까지 들은 후 기쁜 마음으로 대상지 재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실수요에 맞춰 대상지를 찾다 보니 순풍에 돛단배처럼 진행은 아주 순조로웠다.

이렇게 대상을 확장해 사업을 추진한 성과와 효용성은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사업에서 수혜 가구가 1~2가구에 그친 것과 달리 2023년에는 무려 그 10배, 20배인 22가구가 혜택을 누렸다. 게다가 2023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많은 농가에서 추가



신청을 해와서 2023년부터 2024년 10월 확인결과 현재까지 총 39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뿐만 아니다. 사업의 결실이 소문 났는지 지역 방송사인 광주·전남 지역방송사(CMB)에서 군정과 잘 어우러지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므로 널리 알려 보겠다며 취재를 해갔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봉산면 주민은 적잖이 쑥스러워하면서도 그동안의 고충과 함께 농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품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등 사업의 효과를 열성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특히 “송아지를 분만하는 시기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필수인 CCTV가 버벅대서 손해를 겪기도 했는데 이제 그럴 일 없다”라며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스레 뭉클해지기도 했다. 지역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잘사는 부자 농촌.’ 우리 담양군의 비전이면서 모든 농어촌의 지향점이 아닐까. 초고속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2024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아쉬운 마음에 이런 주제넘은 생각을 해봤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지금, 축사 같은 농업시설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을 본격화한다면 우리 농어촌도 또 다른 부흥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궁금증도 생겼다.

모든 축사에 초고속 통신망이 깔리고 도시의 스마트팩토리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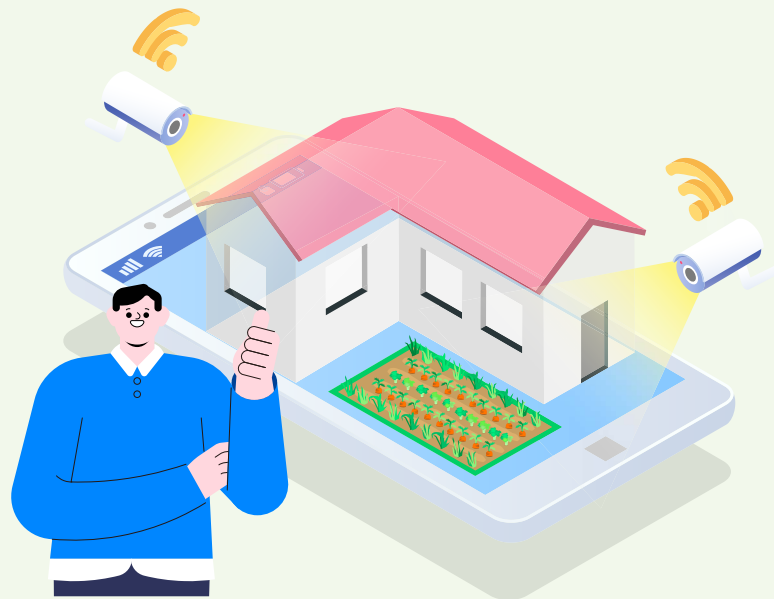
농촌에도 스마트팜이 일상화되면 축산 농부는 뭘 하지?

소는 이제 CCTV가 키운다고 해야 하나?



## 우리 집에 조용한 경비원이 산다

정원형 (충청남도 서산시)



힘들게 경작해 수확한 농작물을 도둑맞고도 목격자가 없어 신고조차 포기했던 충남 서산시의 농민이 농촌의 취약한 보안에 아쉬움을 느끼던 중 마을에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되자 CCTV를 집 곳곳에 설치해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조용한 경비원을 얻게 된 이야기



몇 년 전 가을, 아내와 외출했다 돌아온 사이에 애써 말려둔 고추를 도둑맞은 사건이 있었다. 누군가가 집 마당까지 들어와 창고에서 고추가 담긴 포대들을 가져가 버린 것이다. 급히 이웃들에게 연락해 우리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차를 봤는지 물었지만 너무 외진 곳이라선지 목격자는 찾을 수 없었다.

여름 내내 땀벌에서 농약을 주고 쪼그려 앉아 수확한 다음 정성껏 퍼서 말리기까지 한 피와 땀의 농작물을 도둑맞다니, 몹시 황당하고 억울했다. 하지만 목격자도 없고 마을에는 CCTV마저 없어서 누가 언제 가져갔는지 확인할 길은 없었다. 할 수 없이 경찰 신고도 포기해야 했다.

도시의 아파트는 대부분 정문, 공동 현관, 세대 현관 등 몇 단계를 통과해야만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고 경비원도 24시간 지키는 곳이 많다. 아파트 안은 물론 거리 곳곳에도 CCTV가 있어 오히려 사각지대를 찾는 일이 어려울 정도다. 그와 달리 시골은 다중 출입 시스템과 경비원은커녕 CCTV도 잘 없어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마을처럼 집들이 드문드문 있는 곳은 인적마저 드물어 더욱 보안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문단속을 잘한다고 해도 해가 지거나 장시간 외출할 일이 생길 때는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에서 접하던 수확기 농작물 절도 사건을 직접 겪고 나니 보안 시스템이 더 절실했다. 집 대문과 마당이라도 CCTV를 설치할까 고민해 봤지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아 느린 데이터 전송 속도 탓에 설치해도 무용지물일 터였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초고속 통신망이

깔린다는 소식이었다.

정부에서 하는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주민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대하던 초고속 통신망 구축 작업이 완료된 후 곧바로 CCTV 설치를 신청했다. 며칠 후 설치 기사가 와서 뜰안채와 대문 앞, 창고 외벽에 카메라를 달고 인터넷 선을 연결해 주었다. 모니터와 녹화기는 안방에 두었는데 덕분에 방안에서도 바깥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이제는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거나 개가 짖을 때 굳이 마당에 나가보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안방에서 모니터를 통해 누가 집에 들어왔는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휴대폰 앱으로 CCTV 화면을 확인할 수 있어 외출했을 때도 실시간으로 집 상황을 알 수 있다. 덕분에 여행 등으로 장시간 집을 비워야 할 때도 걱정 없이 대문을 나선다.

한 번은 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정작 집 앞에 배송된 게 없는 때가 있었다. 이전 같으면 택배 기사에게 전화부터 했겠지만 대신 그날은 방에 들어가 녹화된 영상 먼저 돌려봤다. 다행히 다른 가족이 발견하고 집안으로 들여놓은 거였다.

이처럼 CCTV는 범죄 예방 측면에서도 분명 효과적이다.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다가도 대문 위에 떡하니 설치된 CCTV를 본다면 바로 발길을 돌릴 테니.

사실 처음 CCTV를 설치할 때는 워낙 시골이라 영상이 끊기거나 녹화가 잘 안될 수도 있을 거란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몇 달 동안 사용하면서 한 번도 그런 불편을 겪은 적이 없다.

외진 시골 마을에 살며 이런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마을에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된 덕분이다. 안방에 누워서 또는 여행을 가더라도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 수 있는 세상이라니, 초고속 통신망이 없던 시절에는 꿈도 못 꾸던 것이다.

이제 우리 집에도 경비원이 산다.

그것도 365일 24시간 잠조차 자지 않고

조용히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누구보다 유능한 경비원이.



## PART

# 3

## 통신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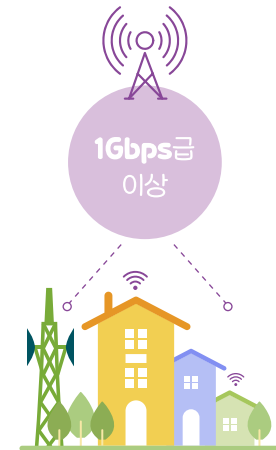


## 오지 마을에서 빛의 속도로 세상과 소통하다

김성길 (전라남도 보성군 총무과 정보통신팀 지방방송통신7급 주무관)



전남 보성군의 오지 마을과 축사,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 등 25개 마을에서 372가구 1135명이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통해 무제한의 초고속 인터넷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국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업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의 만족감도 상승한 이야기



전남 보성군은 2022년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라남도과 협력해 주민 숙원사업인 초고속 인터넷 기반을 구축했다.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통해 이제 소규모 주택단지 등 25개 시골 마을에서도 1Gbps급 이상의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혜택을 받는 주민은 372가구, 총 1,135명에 달한다.

특히 마을 중심에서 몇 km 떨어져 있어 인터넷 구축이 어렵던 오지 마을과 스마트 영농을 위한 집단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운영하는 마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첨단 시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는 주민이 현장에서 관리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줄여 줌으로써 이동의 자유를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득량면 도촌리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사업장이 마을에서 약 2.5km 떨어져 있는 탓에 통신사에 인터넷 구축을 요청해도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유선 인터넷 사용은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 덕분에 빠른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하셨다.

그는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도 고국의 가족과 영상통화를 원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되면 오지 않으려 한다며, 이제는 PC와 와이파이를 설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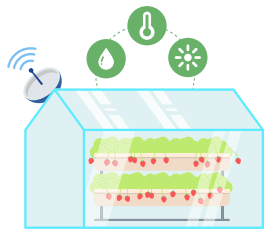


직원 편의를 높이고 축사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출타 중에도 관제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해졌다고 고마워하셨다.

해당 주민 외에도 마을로 오는 경로에는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주민이 스스로 구축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던 만큼 이번 사업은 국민 수혜도가 매우 높았다.

웅치면에서 소규모 축산업을 운영하는 주민들 역시 이번 사업에 매우 만족하고 계신다. 집을 떠나 외지에 다녀올 때마다 항상 걱정과 불안이 있었는데, 이제는 CCTV로 원하는 시간에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고 하셨다.

특히 출산을 앞둔 소가 있을 때는 축사를 떠나는 것이 부담이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 자유를 찾은 것 같다고 하셨다. 그분들의 축사는 모두 같은 경로에 위치해 있어 한 번의 통신망 구축으로 모두 초고속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었다.



별교읍 척령리의 비닐하우스 농가에서도 사업이 끝난 후 고마움을 전해오셨다. 딸기 농사를 짓는 주민은 요즘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이 기계화, 자동화되어 원격으로 빛과

물, 온도 등을 조절하고 영상으로 생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영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인터넷이 없어 시설에서 떠날 수 없었다고 하셨다.

비닐하우스가 마을이나 큰길에서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통신사에 인터넷 구축을 요청하니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해서 열악한 농가에

큰 부담이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구축해 줘서 주변 농가들이 무척 감사해 하고 있다며 농사지를 맞이 난다고 하셨다.

한편 검백면 사곡리의 소규모 주택단지에서는 귀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셨다. 형제자매가 함께 귀촌해 생활하고 있는데 주 마을에서 약 600m 떨어져 있어 인터넷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천만 원 정도나 든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장님이 사업을 소개해 신청하셨다.

그분들은 구축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동안의 불편함을 생각하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다면서, 공기 좋은 초암산 자락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하셨다. 또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들꽃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셨다.

이처럼 국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담당자로서도 매우 만족도가 높은 일이다.

특히 정보 소외 계층이 많은 오지 마을에서는  
사업의 효용성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2023년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한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 구축지 이용자 활성화 교육도 진행했다.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 방법에 대해 세한대학교 최영환 교수님이 관내 주민 33명을 대상으로 교육해 주셨다.





요즘은 휴게소 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고, 특히 농어촌에 사는 주민은 마을 방송도 스마트폰으로 들어야 한다. 이런 시대에 발맞춰 고령 주민도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을 통해 재미있게 교육해 주셔서 주민 반응이 좋았다. 게다가 통신사에서 방문해 통신망 구축에 따른 인터넷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올해도 13개 마을에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 진행 중이다. 축산 농가와 스마트 영농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예정인데, 특히 청년들이 귀농 귀촌할 때 통신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국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자유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아자아자! 시민의 행복이 곧 나의 자부심

✎ 김성덕 (충청북도 제천시 정보통신과 공무원)



충북 제천시 정보통신직 공무원이 부임 초기 관내를 돌며 사업을 소개하는 상사로 부터 느꼈던 공무원 생활의 자부심을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직접 맡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마움을 표하는 주민들을 만나 자신도 직접 느끼게 되면서 일하는 보람이 커지고 동기 부여된 이야기





충북 제천시는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된 지역인 데다 시내권과 남부권의 거리가 멀어 초고속 인터넷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마을이 많다. 일부 마을은 브리지나 TV 대역 가용 주파수(TVWS) 시스템 같은 무선 장비를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무선 장비 특성상 속도가 느리고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해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 특히 잦은 연결 중단과 느린 속도 탓에 주민 안전에 꼭 필요한 CCTV 설치에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다.

수산면 수곡리도 그런 마을 중 하나였다. 민원 전화 한 통에 찾아간 산 중턱의 마을은 통신망이 없어 CCTV 설치느커녕 인터넷 사용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동통신 신호마저 희미하게 잡히는 곳이었다.

민원 전화를 해온 이는 그 마을 끝에 살며 산양삼 농사를 짓는 주민이었다. 그는 애써 키운 농작물을 자주 도난당하는데, 경찰에 여러 차례 수사를 의뢰했으나 CCTV가 없어 누가 작물을 훔쳐 가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졌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해봤지만 초고속 통신망이 없는 마을이라 통신사에서는 700만 원 정도를 내야 초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하졌다. 그리고는 당장 내일 또 산양삼을 도난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니 하루빨리 인터넷 설치가 필요하다며 사정하졌다.

그 인근에 사는 귀촌한 4남매의 사정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경기도에 살다가 제천이 살기 좋다는 말에 가족이 함께 귀농했는데, 정작 와보니 산 중턱에 지은 집에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아 제천에 온 것을 후회하는 마음까지 든다고 하졌다. 어찌 보면 자신들 덕분에 마을이 새로

구성된 것인데 정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하졌다.



이처럼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통해  
원활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었다.



수곡리 주민은 이제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면서 시청 홈페이지 칭찬 게시판에 직접 글까지 남겨 주졌다.

이 외에도 비슷한 불편함을 겪고 있던 봉양읍 명도리와 백운면 원월리 주민들이 사업 완료 후 감사 전화를 주셨고, 모산동의 한 주민은 비닐 하우스에서 얼음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스마트팜이라는 최신식의 영농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아주 뿌듯해하기도 하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일일이 기억도 못할 정도다. 시청 공무원의 업무라는 게 대부분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라 피곤함이 절로 밀려올 때가 많은데, 그런 감사 인사를 받으면 피곤함은 순식간에 뿌듯함으로 전환된다.

처음 제천시청에 발령받았을 때가 생각한다. 선임 주무관님은 나를 데리고 여기저기 농촌 지역 답사를 다니셨다. 그간 정부 사업으로 인터넷 시설이 구축된 현장들을 직접 볼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인데, 주무관님으로부터 어떤 자부심이 느껴졌다.

'우리가 이렇게 농촌의 인프라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굳이 말로





전하지는 않으셨으나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때 어렵פות이 느낀 자부심과 보람의 현장에 이제는 내가 직접 서 있다니 기분이 남다르다.

2023년 사업 이후에는 나름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 12개 마을을 제출했고, 정부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부터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인터넷 인프라를 개선해 보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뿌듯함의 기억으로,  
내가 우리 제천시 인터넷 인프라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임할 것이다.

제천시 인구 13만 명 중 나만이 할 수 있는 업무니까 더욱 자부심을 갖고 일하자. 아자아자!

## 디지털로 소통하는 살맛 나는 우리 마을

김영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담당관 방송통신6급)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19년차 방송통신직 공무원이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담당하며 디지털 소외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디지털을 통해 더 살맛 나는 산골 마을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



“요즘 같은 세상에 통신 안 되는 데가 어디 있나!”

“자부담이 몇백만 원이라는데 군수님이 해결해 줘야지 개인이 어떻게 하나!”

“인터넷이 안 되니 아무것도 못 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소속의 19년차 방송통신직 공무원인 내게는 한동안 이런 민원이 쏟아졌다. 주요 업무는 내부 행정과 민원 업무를 위한 통신 인프라 도입 및 운영, 관리 등이지만 최근엔 휴대폰, 인터넷, 공공 와이파이, CCTV 등 통신 서비스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 업무가 늘고 있다.

민원인에게는 투자가 어려운 통신사 사정을 설명하고 통신사에는 민원인의 고충을 설명하는 부탁과 사정의 연속이다. 때문에 망 구축부터 운영 관리, 가입자 모집까지 통신사 영역이니 시원하게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왜 우리가 중간에 끼서 민원인 욕받이가 되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우리 평창군은 서울시 면적의 약 2.5배 크기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넓고 비슷한 인구 분포의 읍·면 8개가 있는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이다. 군 전체 면적의 83% 정도가 임야 지대이다 보니 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다행히 그런 주민의 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지난 5년에 걸쳐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시행했고,

그 결과 우리 평창군에서는 정보 소외 지역 44개 리(里)에

초고속 통신망이 깔리게 되었다.

돌아보면 사업은 대상지 발굴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곤 했다. 국민 신문고, 전화, 방문 등 민원이 접수된 마을과 통신사에서 청약 신청이 거절된 마을 중 대상지 조건에 부합되는 곳을 추렸다. 하지만 까다롭게 선정했음에도 통신사에서조차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로 설치가 불발되면 해결 방법이 없어 입장이 매우 곤란해진다.

그렇게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더 많은 곳을 선정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된다. 그동안은 사업을 추진하느라 미처 풀어내지 못한, 디지털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소통하게 된 마을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본다.

## #1

### 평창읍 다수리



어느 날 서울에서 공기 좋은 산골 마을로 귀촌했다는 민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도로에서 500m밖에 안 떨어진 집이고 근처에 펜션도 있는데 인터넷 설치가 안된다고 하소연하셨다. 통신사에서 자부담 1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무슨 용도로 필요한지 여쭙보니, 일 때문에 이메일을 써야 하고 미국에 있는 손주와 영상통화도 해야 한다고 하셨다. 일도 일이지만 타국에 있는 자식들 소식이 얼마나 궁금하고 보고 싶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 내년도 정부 지원 사업에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사업 선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주변의 다른 인터넷 수용 가구를 찾았다. 그리고 4가구를 모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인터넷 들어오니 좋으세요?”

“그럼요. 번역 일을 하는데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고, 산속에 살다 보니 식재료나 생필품 구하러 나가지가 힘든데 온라인으로 주문하니 너무 편해요. 무엇보다 손자와 영상 통화를 맘대로 할 수 있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연거푸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에게 “꼭 필요하신 걸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게 돼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나니, 깊은 산골이지만 디지털 세상에서의 소통만큼은 도시와 차이가 없음을 느꼈다.



## #2

### 용평면 이목정2리

하루는 묵직한 경상도 사투리의 중년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이곳에 들어온 지 6~7년 정도 되는데 휴대폰도 잘 안되고 통신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 생활이 영 불편하다고 하셨다. 농사를 지어도 온라인으로는 판매를 못하고 산양삼을 잔뜩 심어 놓았는데 CCTV가 없으니 걱정돼서 집도 마음 놓고 못 비운다고도 하셨다.

그가 사는 곳은 마을에서도 2km 정도 험한 임도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산 정상 부근이었다. 그 깊은 산골에서 마음대로 인터넷도 못하면 얼마나 불편하실까 하는 생각에 “내년도 사업이 추진되면 대상지 조사할 때 1순위로 접수하겠다며 연말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다.

이후 그는 두 달이 멀다 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 독촉하셨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꼭 좀 되게 해줘요.”

“불편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업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매번 같은 질문과 대답이 꽤 여러 번 오갔다. 마침내 약속대로 무사히 사업을 마치고 확인차 민원인 댁을 직접 방문했다. 가는 길은 생각보다 더 험난했다. 임도 초입부터 4륜 SUV 차량 하부에 돌맹이 부딪히는 소리가 수없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반갑게 맞는 민원인의 목소리에 바로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그는 CCTV를 달아놔서 이젠 집을 비울 때도 산짐승이 왔는지 볼 수 있어 안심되고, 휴대폰도 잘 터지고 인터넷도 와이파이로 마음껏 쓸 수 있으니 수시로 일기예보도 확인한다며 좋아하셨다.

“이런 산골일수록 농사꾼한테 일기예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덕분에





생활이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고 싶으니 시간 나면 아무 때라도 놀러 와요.”

그 험한 길을 다시 내려갈 생각에 벌써부터 아찔했지만, 민원인 말씀을 들으니 언젠가 진짜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 #3 진부면 막동리



계곡을 따라 산기슭에 형성된 산촌에 사는 민원인으로부터 요즘 TV도 인터넷도 잘 안된다고 전화가 왔다. 그는 30여 년 전부터 마을 초입에 살다가 15년 전쯤 계곡 안쪽으로 1km 정도 들어와 새로 집을 지어 살고 있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사 전에 잘되던 것들이 안돼서 여간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다.

들어보니 예전에 살던 곳에는 케이블 모뎀 방식으로 인터넷이 공급 되었는데 지금 사는 곳은 통신망 설치가 아예 안돼 있어 할 수 없이 자비로 통신선을 나뭇가지에 가설해 인터넷을 쓰고 있다고 하셨다. 또 TV는 위성방송을 보는데 그마저도 노후되어 바람이 많이 불거나 눈비라도 오면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하셨다.

그러다 얼마 전 위성방송 수리 기사로부터 최근에 마을 중심지는 광케이블로 교체했지만 이곳은 광케이블 공급이 안 되니 더 이상 인터넷을 쓸 수 없을 거라며 군청에서 농어촌 지원 사업 접수를 받고 있으니 신청해

보라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하신 거였다. 서둘러 접수를 해드리고 마침내 사업이 마무리된 후 통신사 직원과 민원인을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잘 쓰고 계시죠?”

“네, 정말 고마워요! 통신 때문에 여러 군데 민원도 내고 진정서도 내봤어요. 이번에 안됐으면 KT 본사까지 진정서 들고 찾아갈 참이었는데 이렇게 해결돼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는 “요즘은 산골에 사는 노인일수록 인터넷이 꼭 필요해요”라고 강조하셨다.

“도시인이나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고 필요한 거 있으면 방법 찾아서 하면 되지만 나이 먹고 시골에 살면 그게 맘처럼 잘 안돼요. 그래도 인터넷이 되면 문화생활도 하고 불일도 볼 수 있지요. 게다가 지금 세상은 인터넷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몰라요.”

감사 인사에서 시작해 30년 전 길도 뚫리지 않은 시절에  
마을로 들어와 집 짓고 계곡물에 송어 키우던 얘기까지  
장황하게 이어가셨지만, 말씀을 다 듣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 #4

#### 봉평면 진조리

점심시간을 앞두고 민원팀에서 전화가 왔다.

“어떤 민원인께서 인터넷, 통신 이런 거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데 주무관님이 만나보셔야 할 거 같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메모 수첩을 챙겨 서둘러 민원실로 향했다. 6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불편 때문에 오셨어요?”

“3~4년 전부터 계속 인터넷 신청을 했는데 주변에 신청자가 없다고 3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럴 여유가 어딴어요. 여자 혼자 살다 보니 밤에는 무섭기도 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요즘 인터넷 안되면 세상이 딱 막힌 거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진행되면 가능한지 확인해서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 대리점 갔다 오는 길인데, 나라에서 주민이 불편한 걸 해결해 줘야지 나더러 몇백만 원을 내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앞으로 될 때까지 계속 요청할 거고 철회할 생각 없으니까 꼭 되게 해줘요.”

몹시 완강하고 단호한 요구였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 외에 당시엔 더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었다.

이후 아주머니 닉이 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인터넷이 설치되자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온화한 말투로 다시 전화가 왔다.

“집에서 와이파이가 잘되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 데이터 요금이 부담돼서 못 보던 동영상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네요. 외판곳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방송 시청만 할 수 있어도 적적하지는 않거든요. 조만간 안전을 생각해서 집 주변에 CCTV도 신청할 계획이에요.”

전화선 너머로 한껏 들뜬 아주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며 나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이 세 곳 외에도 기존에 신청을 했으나 통신사에서 난색을 표해 사업이 불발되었다가 다행히 올해 재추진한 마을이 몇 군데 있다.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다들 감사 전화를 주곤 하신다.

직접 방문까지 해서 부탁하셨던 연세 지긋한 어르신은 “이 나이에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되어 너무 편리하다”라고 하였고, 귀농하여 목장을 운영한다는 주민은 “CCTV를 설치해 소들을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되어 큰 걱정을 덜었다”라며 고마워하셨다.

또 30여 년 전 부친이 조성한 은행나무 숲에 귀촌하여 체험형 카페를 연 젊은 창업가는 “최근 지역의 명소로 알려져 찾는 손님이 늘고 있지만

인터넷은 물론 휴대폰까지 잘 안돼 불편이 컸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카페 홍보도 할 수 있고 손님들도 와이파이기가 잘되니 좋아하신다”라고 하셨다. 귀농, 귀촌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한 삶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늘어날 것이다.

초고속 통신망을 타고 보다 스마트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도 우리 마을의 디지털 소통은 진행 중이다.





---

발행일	2024.12
발행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자인	디자인크레파스 02-2267-0663



2024 **우리마을**

# **초고속 통신망**

활용체험 수기 공모전 우수사례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